

# 한국에서의 朱子文集 수용방식\*

Ways of Accepting the Collection of Master Zhu's Works in Korea

崔彩基 (Choi, Chae-gi)\*\*

◁ 목 차 ▷

1. 머리말	5. 『주자서절요』 이후의 주자문집
2. 주요 중국본 주자문집	주석서와 절요서
3. 한국본 『朱子大全』의 간행	6. 맺음말
4. 『朱子書節要』의 刊行	<참고문헌>

< 초 록 >

朱子가 집대성한 性理學은 13세기말에 처음 한국에 수입되어 조선왕조 500여 년 동안 한국의 학문을 주도하였다. 이에 따라 朱子의 文集인 『朱子大全』 역시 다른 성리학 문헌들과 함께 한국에 수입되었다. 『朱子大全』은 金安國이 1543년에 한국에서 처음 간행한 이래 柳希春(1575), 元斗杓(1635), 洪啓禧(1771) 등의 주관으로 校書館과 전라도 全州에서 총 4차례에 걸쳐 간행되었다.

退溪 李滉은 『주자대전』이 간행되자 121권의 방대한 주자의 詩文 가운데 학문적으로 중요한 편지만을 抄節하여 1556년에 『朱子書節要』를 편찬하였고, 그의 知舊門人과 後學들이 총 10차례에 걸쳐 이를 간행하였다. 그 후 『朱子書節要』의 편집방식에 영향을 받은 후대 성리학자들은 그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주자의 편지뿐만 아니라 다른 詩文에 대해서도 다양한 節要書を 편찬하였다.

『주자대전』은 중국에서 간행된 原本 그 자체에 缺落과 誤字가 매우 많았다. 때문에 한국에서 『주자대전』과 『주자서절요』를 간행할 때에는 원본을 그대로 간행하지 않고 李滉, 柳希春, 洪啓禧 등이 정밀한 校正을 실시하여 그 원본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그와 아울러 이황과 그의 후학들은 『주자대전』과 『주자서절요』의 난해한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註釋을 가함으로써 주자의 학문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켰다. 또한 1771년에 간행된 洪啓禧本 『주자대전』에서는 다른 문헌에 수록된 주자의 시문과 전기자료 등을 수집하여 遺集과 附錄을 增補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한국에서는 주자의 문집을 抄節, 校正, 註釋, 增補 등의 방식으로 정리하여 성리학의 基本書로 만들어 나갔다.

要語: 『朱子大全』, 『朱子書節要』, 李滉, 金安國, 柳希春, 元斗杓, 洪啓禧

\* 본 논문은 臺灣 東吳大學에서 개최한 第三屆 古典文獻學 國際學術研討會(2014. 4. 25~26.)에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국고전번역원 책임연구원(cgchoi@itkc.or.kr)

접수일: 2014년 12월 1일 최초심사일: 2014년 1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4년 12월 24일

<ABSTRACT>

Neo-Confucianism integrated by master Zhu was introduced in Korea at the end of 13th century and dominated the whole study in Korea for about 500 years of Chosun Dynasty. Accordingly, *Zhuzidaquan*(朱子大全), another collection of master Zhu's works, was brought in with other Neo-Confucian books. Since 1543 when it was first published by Kim Angook(金安國), *Zhuzidaquan* was issued four times from Gyoseogwan(校書館) and Jeonju(全州), which was led by Ryu Huichoon(柳希春, 1575), Won Dupyo(元斗杓, 1635), and Hong Gyehee(洪啓禧, 1771).

After the publication of *Zhuzidaquan*, Lee Hwang(李滉) compiled academically important letters selected from 121 volumes of poetry and prose, which was called *Jujaseojulyo*(朱子書節要) and published 10 times by scholarly friends and younger students. This affected other Neo-confucianists of later generations and they published many kinds of selections, anthologies of master Zhu's letters as well as other poetry and prose.

The original *Zhuzidaquan* was not perfect that there were a lot of missing parts and wrong spellings so before *Zhuzidaquan* and *Jujaseojulyo* were published in Korea, Lee Hwang, Ryu Huichoon, and Hong Gyehee looked into the originals closely and made corrections on them. Lee Hwang and his coming generations had master Zhu's works understood more clearly and deeply, by annotating them in detail. Furthermore, master Zhu's posthumous works of poetry and prose and appendix were added in Hong Gyehee's edition(1771) of *Zhuzidaquan*. As seen from the above, Korea made a primer on Neo-confucianism by selecting from, correcting, annotating, or adding to, master Zhu's works.

Key words: *Zhuzidaquan*, *Jujaseojulyo*, Lee Hwang, Kim Angook, Ryu Huichoon, Won Dupyo, Hong Gyehee

## 1. 머리말

한국의 性理學은 13세기말에 元나라로부터 처음 도입된 이래 빠르게 전파되어 조선의 건국초기부터 官學으로서 위치를 확고하게 차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四書集註』를 비롯한 朱子(1130~1200)의 저술과 北宋시대 이루어진 각종 性理書들이 한국에 수입되어 간행되었다. 1543년에 朱子の 文集인 『朱子大全』이 刊行되자 退溪 李滉(1501~1570)은 『주자대전』에 수록된 편지 가운데 학문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抄出하여 『朱子書節要』를 편찬하였다. 그의 후학들은 더 나아가 『주자대전』과 『주자서절요』에 대한 다양한 節要書와 註釋書를 편찬하여 한국의 성리학을 한층 높은 단계로 올려놓았다.

본 연구에서는 주자의 문집이 한국에 수입되어 학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되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한국에서 간행된 『주자대전』과 『주자서절요』의 판본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조사해 보았다.

## 2. 주요 중국본 주자문집

본 논의에 앞서 중국에서 간행된 주자문집의 주요 판본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자의 문집은 1189년경에 淳熙本 『晦菴先生文集』(前集11卷·後集18卷, <그림 1> 참고)을 시작으로 생전에 이미 두 차례 간행되었으나 주자의 시문 전체를 수록한 문집이 간행된 것은 그의 사후에 이루어진다. 그 첫 번째 문집 판본은 1200년에 주자가 세상을 떠난 후 셋째 아들 朱在가 부친의 유언에 따라 주자의 시문을 수집하여 편찬한 것을 1239년에 王堃가 총 100권으로 간행한 것이다. 이어 1245년에 王遂가 續集을 간행하고 1265년에 余師魯가 別集을 간행하여 正集 100권, 續集 11권, 別集 10권의 『晦菴先生朱文公文集』을 완성하였다. 이들 판본은 모두 주자를 享祀한 福建의 建安書院에서 간행되었다. 그 후로 주자의 문집은 건안서원 판본을 계승한 福建의 “閩本”과 浙江에서 간행한 “浙本”으

로 나뉘어 飜刻과 補刻을 거듭하며 遞修本의 형태로 통행되었다. 민본과 절본은 분량과 판형, 그리고 서명에 있어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민본은 正集과 함께 속집과 별집이 동시에 간행된 반면 절본은 속집과 별집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민본은 반엽이 10行 18字인 반면 절본은 10행 19자로 되어 있다. 또한 민본은 이전의 『晦菴先生朱文公文集』이란 서명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浙本은 『晦菴先生文集』이란 서명을 쓰고 있다(<그림 2>, <그림 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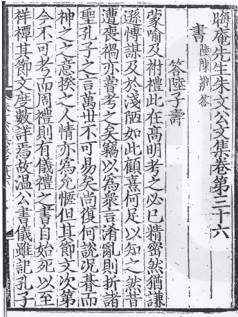
명나라에 들어와서는 1460년에 『晦菴先生朱子大全』이란 서명으로 “天順本”이 간행되었다. 이 판본은 胡緝과 賀沈이 민본을 저본으로 삼아 간행한 것으로, 缺落과 誤字가 많았다. 그래서 前翰林院編修官 黃仲昭가 절본을 참고하여 소략한 내용을 보충하고 오자를 교정하여 1483년에 改修本을 만들었다(<그림 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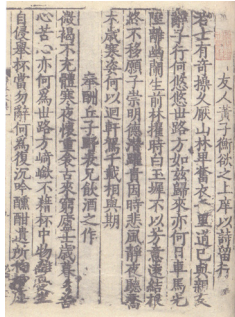
<그림 1> 淳熙本  
(대만국립고궁박물관 소장본)

1532년에는 『晦菴先生朱文公文集』이란 書名으로 “嘉靖本”이 간행되었다. 이 판본은 胡岳과 張大輪이 민본을 저본으로 삼고 절본으로 교감하여 기존 판본의 缺落과 誤字를 바로잡아 간행하였다. 후대 가장 많이 통행된 판본으로 四部叢刊의 저본으로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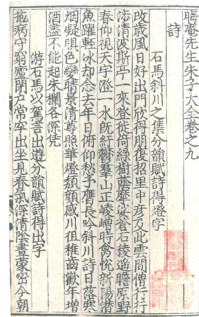
이 嘉靖本 이후로도 1605년의 “萬曆本”과 1689년의 “康熙本”이 간행되는 등 청나라 말기까지 여러 차례 간행되었으며, 그때마다 원본의 誤字에 대한 교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sup>1)</sup>



<그림 2> 闕本  
(북경대 소장본)



<그림 3> 浙本  
(중국국가도서관 소장본)



<그림 4> 天順本  
(산동사범대 소장본)

중국에서 간행된 주자문집의 주요 판본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중국본 주자문집 일람표

版本名	書名	分量	行×字	刊行時期	刊行主體
王栻本	晦菴先生朱文公文集	100권	10×18	1239	王栻
續集	晦菴先生朱文公文集	11권	10×18	1245	王遂
別集	晦菴先生朱文公文集	10권	10×18	1265	余師魯
闕本系刊本	晦菴先生朱文公文集	正100, 續11, 別10	10×18	宋·元·明代	
浙本系刊本	晦菴先生文集	正100	10×19	宋代	
天順本	晦菴先生朱子大全	正100, 續11, 別10	11×22	1460	胡緝·賀沈
嘉靖本	晦菴先生朱文公文集	正100, 續11, 別10	12×22	1532	胡岳·張大輪
萬曆本	朱子文集大全	正88, 續11, 別10	未確認	1605	朱吾弼
康熙本	晦菴先生朱文公文集	正100, 續5, 別7	12×24	1689	蔡方炳·臧眉錫

- 1) 伊波·郭齊, <版本考略>(『朱熹集』 10卷 5860~5886쪽)  
 王遂, <闕刊本文公續集序>(『朱子全書』 25卷 5062쪽)  
 黃鏞, <闕刊本文公別集序>(『朱子全書』 25卷 5063쪽)  
 胡緝, <天順刊本朱子大全序>(『朱子全書』 25卷 5065쪽)  
 蘇信, <嘉靖刊本晦庵先生朱文公文集序>(『朱子全書』 25卷 5065~5066쪽)  
 潘演, <嘉靖刊本晦庵先生朱文公文集卷目後題記>(『朱子全書』 25卷 5066~5067쪽)  
 黃仲昭, <天順刊本晦庵先生朱文公文集跋>(『朱子全書』 25卷 5067~5068쪽)  
 蔡方炳, <康熙刊朱子大全文集書後>(『朱子全書』 25卷 5072~5073쪽)  
 臧眉錫, <康熙刊朱子大全文集序>(『朱子全書』 25卷 5073~5075쪽)

### 3. 한국본 『朱子大全』의 간행

주자의 문집은 중국에서 간행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 전래된 것으로 보인다. 고려 후기에 성리학을 처음으로 소개한 安珦(1243~1306)의 年譜에 의하면, 1290년에 그가 元나라 燕京에서 朱子書를 抄寫하여 들여왔다고 하였다.<sup>2)</sup> 하지만 주자의 四書集註가 고려말에 이미 權溥에 의해 간행되어 학자들 사이에 널리 읽힌<sup>3)</sup> 반면에 주자의 문집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주자의 문집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세종이 1429년에 전국에 지시를 내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주자의 문집을 진상하게 하자 경상도 安東의 尹妃란 인물이 『朱文公集』 즉, 『晦菴先生朱文公文集』 32권을 바쳤다고 하였다. 세종은 즉위초부터 매일 經筵에 참석하여 眞德秀의 『大學衍義』(1418년), 胡安國의 『春秋胡氏傳』(1419년), 주자의 『資治通鑑綱目』(1420~1421년)을 대상으로 신하들과 학문적 토론을 벌였으며 1421년에는 금속활자인 庚子字가 주조되자 곧바로 이 활자를 사용하여 『資治通鑑綱目』을 간행하였다. 또한 1419년과 1426년의 두 차례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性理大全』, 『五經大全』, 『四書大全』을 수입하였고 1424년~1428년 사이에는 이들 거질의 대전들을 목판으로 간행함으로써 한국성리학의 문헌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세종은 1429년에 주자의 문집도 함께 간행하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 간행되지 못했다. 그 후 주자의 문집은 100년이 지난 중종대 金安國에 와서야 처음으로 간행되기 시작하여 柳希春, 元斗杓, 洪啓禧에 의해 『주자대전』이란 이름으로 총 4차례 간행된다.

한국에서 간행된 『주자대전』을 구체적으로 살피기에 앞서 각 판본의 명칭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중국본 주자의 문집은 현재 중국에서 통용하고 있는 판본명이 있으나 조선에서 간행된 판본은 아직 통용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먼저 판본명부터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판본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간행 次數,

2) 『晦軒先生實紀』 권3 「年譜」.

3) 『增補文獻備考』 권242 藝文考 「歷代書籍」.

간행한 연도의 干支나 간행한 곳의 地名 또는 官廳名, 활자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각 판본이 구분되도록 적절히 부여해 왔다. 『주자대전』의 판본은, 1543년(계묘년)에 金安國이 교서관에서 乙亥字로 간행한 활자본, 1575년(을해년)에 柳希春이 교정하여 교서관에서 을해자로 간행한 활자본, 1635년(을해년)에 전라도 관찰사 元斗杓가 전라도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판본, 그리고 1771년(신묘년)에 洪啓禧가 교정하여 전라도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판본 등 네 종류의 판본이 있다. 주자의 문집은 중국에서 이미 여러 차례 간행되었으므로 初刊本·重刊本·三刊本 등과 같이 한국만의 독자적인 간행 次數를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고, 간행 연도에 을해년이 2종이고 간행 지역에 전라도가 2종, 간행 관청에 교서관이 2종, 활자로는 을해자가 2종이 있어 앞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명칭을 정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 판본의 교정과 간행을 주도한 인물의 이름으로 판본명을 부르기로 한다. 한국본 『주자대전』은 다른 문헌에 비해 각 판본의 교정이나 간행에 특출하게 공헌을 많이 한 인물이 한 사람씩 있으며, 그들은 모두 문헌의 편찬과 간행에 관한 한 당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판본명을 부여함에 있어 여타의 기준보다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본 『주자대전』은 시기 순으로 金安國本, 柳希春本, 元斗杓本, 洪啓禧本이라 부르기로 한다.

### 3.1 金安國本 『朱子大全』

주자문집의 간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람은 조선중기의 金安國(1478~1543)이다. 그는 中宗이 성리학자들을 대거 등용하여 조선을 성리학적 이상국가로 만들려고 할 때 趙光祖(1482~1519)와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학자였다. 그는 외직인 경상도관찰사로 나가 『小學』(1517),<sup>4)</sup> 『呂氏鄉約』(1517),<sup>5)</sup> 『童蒙須知』(1517),<sup>6)</sup> 『性理大全』(1518)<sup>7)</sup> 등을 木版으로 간행하여 성리학의 보급에 앞장

4) 許穆, 『記言』別集 권26 <慕齋金先生行狀>.

5) 『中宗實錄』12年(1517)3月15日.

6) 『中宗實錄』12年(1517)閏12月14日.

섰으며, 1518년에는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朱子大全』, 『朱子語類』, 『伊洛淵源錄』, 『論語孟子或問』, 『延平答問』, 『傳道粹言』, 『張子語錄』, 『經學理窟』, 『胡子知言』, 『家禮儀節』, 『古今表選』 등 각종 성리서를 수입한 다음 왕에게 그 책들을 간행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sup>8)</sup> 그러나 이듬해에 반대파의 무고로 인해 그를 비롯한 많은 개혁파 성리학자들이 파직되어 이러한 그의 건의는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金安國은 그 후 1537년(중종 32)에 관직에 복귀하여 때마침 국가의 출판업무를 주관하는 校書館의 提調를 맡게 되자 자신이 예전에 수입해 온 『朱子大全』의 간행을 재추진하였다.<sup>9)</sup> 그는 당시 교서관에서 보유한 금속활자인 乙亥字를 가지고 인쇄에 들어가 1543년 6월에 모든 인쇄작업을 완료하였다. 현재 전하는 본으로는 權檣 종가 소장본, 일본 蓬左文庫 소장본, 일본 宮內廳 書陵部 소장본 등이 있다.<sup>10)</sup>

金安國本 『주자대전』은 目錄 2권, 正集 100권, 續集 11권, 別集 10권으로 도합 95책이며, 卷首題와 版心題 모두 『朱子大全』으로 되어 있다. 반업은 四周雙邊, 23.5×16.5cm, 10행 18자이고, 어미는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이다(<그림 5> 참고). 胡緝의 天順本 重刊序(1460)와 王遂의 續集序(1245), 黃鏞의 別集序(1265)가 卷首에 각각 수록되어 있다.

이 김안국본 『주자대전』이 저본으로 삼은 주자의 문집이 어느 판본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것이 없다. 얼핏 보기에는 金安國本의 卷首에 胡緝의 天順本 重刊序가 수록되고 있고 서명이 『朱子大全』으로 되어 있어 마치 天順本을

7) 金安國, 『慕齋集』, 권12 <書新刊性理大全後>.

8) 『宣祖實錄』 7年(1572)4月23日.

許穆, 『記言』 別集 卷26 <慕齋金先生行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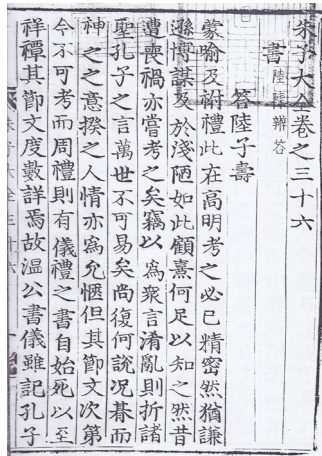
9) 『宣祖實錄』 7年(1572)4月23日.

10) 權檣宗家 所藏本 『朱子大全』 內賜記. “嘉靖二十二年六月日, 內賜議政府左參贊權檣朱子大全一件. 命除謝恩. 都承旨臣洪(手決).”

日本 蓬左文庫 所藏本 『朱子大全』(166-2) 內賜記. “嘉靖二十二年六月日, 內賜承政院同副承旨權應挺朱子大全一件. 命除謝恩. 都承旨臣洪(手決).”

日本 宮內廳 書陵部 所藏本 『朱子大全』(秘404-73) 內賜記. “嘉靖二十二年六月日, 內賜司諫院正言閔起文朱子大全一件. 命除謝恩. 都承旨臣洪(手決).”

저본으로 삼아 간행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김안국본의 판형이 閩本 계통의 판본과 동일한 10행 18자로 되어 있고, 당시에 조판의 편리를 위해 저본의 판형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閩本을 저본으로 삼고 天順本의 서명과 서문을 그대로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그림 2>, <그림 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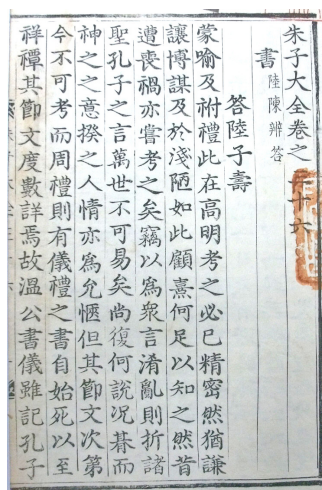
<그림 5> 金安國本 『朱子大全』  
(日本宮内廳 書陵部 所藏本(秘 404-73))

### 3.2 柳希春本 『朱子大全』

이 본은 1575년에 柳希春(1513~1577)이 교서관에서 乙亥字로 간행한 것이다. 김안국본은 간행 직후 誤字가 다수 발견되어 간행되던 해부터 학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金安國과 李滉에게서 학문을 배운 유희춘은 1573년 1월에 宣祖에게 『주자대전』을 다시 간행하자고 건의한<sup>11)</sup> 다음, 자신이 직접 감독과 교정을 담당하며 간행을 추진하였다. 그는 주변 인물들을 통해 교정에 필요한 中國本異本을 수집하고,<sup>12)</sup> 아울러 이황의 『朱子書節要』 및 이황 문인들 사이에 小冊子

11) 『宣祖實錄』 6年(1573)1月12日.

로 통행되고 있던 『朱全說』<sup>13)</sup>과 『朱文說』<sup>14)</sup>을 참고하였다. 『朱全說』은 이황이 문인 李楨과 『朱子大全』에 대해 주고받은 問目<sup>15)</sup>이며, 『朱文說』은 문인 李湛과 『朱子書節要』에 대해 주고받은 問目<sup>16)</sup>으로, 이 속에는 『朱子大全』의 오류를 바로잡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었다.



<그림 6> 柳希春本 『朱子大全』  
(高麗大 所藏本(晩松 貴73c))

유희춘이 『주자대전』을 어떤 원칙에 따라 교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朱子文集語類校正凡例>에 잘 나타나 있다.

- 12) 柳希春, 『眉巖日記草』 1573年5月25日, 1573年12月17日, 1573年9月25日, 1574年6月24日.
- 13) 柳希春, 『眉巖日記草』 1573年6月4日.
- 14) 柳希春, 『眉巖日記草』 1573年6月21日.
- 15) 『定本退溪全書』 <答李剛而問目-朱書>(1560年冬).  
『定本退溪全書』 <答李剛而問目-朱書>(1561年4月).  
『定本退溪全書』 <答李剛而問目-朱書>(1561年10月).
- 16) 『定本退溪全書』 <答李仲久問目-朱子書疑語>(1563年4月).  
『定本退溪全書』 <答李仲久問目-朱子大全疑義>(1564年8月下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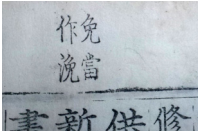
◇ 「주자문집어류교정법례」

1. 문집과 어류의 교정은 여러 異本들에 의거하되 다른 책에 散見되는 시문과 어록들도 상호 참조하여 그 가운데 문리와 의미가 가장 나은 것을 따랐다.
1. 문집과 어류 가운데 중복하여 나오는 것은 표제에 “이미 ○권에 나온다. 이것은 중복이다.[已見○卷, 此重出]”라고 써 놓았다.
1. 어류 가운데 辭語는 甲류에 해당하나 主意가 乙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제에다 “마땅히 ○류 ○문에 들어가야 한다.[當歸○類○門]”라고 써 놓았다.
1. 피휘하여 대체된 글자는 朱文公의 『韓文考異』에서 시행한 예에 따라 실제 글자로 개정한다. 그 가운데에는 또한 감히 실제 글자로 곧장 고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이때에는 표제에다 “○자는 마땅히 ○자가 되어야 한다.[○當作○]”라고만 써 놓았다. 대체로 ‘愼’자는 효종의 휘이므로 고종 때 지은 글에는 ‘愼’자를 그대로 쓰지만 효종 이후에 지은 글에서는 ‘謹’자로 대체되어 있다. 광종의 휘인 ‘惇’자와 영종의 휘인 ‘擴’자의 경우도 모두 마찬가지이다. 만약 古書에서 古語를 인용하는 경우라면 원문을 그대로 살리고 피휘하지 않았다.
1. 書肆版本에서 자획을 생략한 글자, 예를 들어 ‘鄱陽’을 ‘番易’으로 쓴다거나, ‘使君’을 ‘史君’으로, ‘竊謂’를 ‘切謂’로, ‘邂逅’를 ‘解后’로 쓰는 것 등은 모두 완전한 字形으로 바로잡았다.
1. 疊語의 寫法, 예를 들어 ‘幸甚幸甚’의 경우 중국인들은 종종 ‘幸幸甚甚’으로 쓴다. 주문공이 손수 써 놓은 첩어의 사법에 의거하여 모두 바로잡았다.
1. 미심쩍은 글자라 하더라도 다른 증거자료가 없으면 감히 고치지 않고 단지 표지에다 “○는 아마도 ○가 되어야 할 듯하다.[○恐當作○]”든가 “○는 의심컨대 ○가 되어야 할 듯하다.[○疑當作○]”라고 써 놓았다. 그리고 올바른 글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오자이다.[誤]”라고만 써 놓았다.<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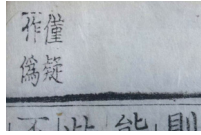
이 교정법례에서는 異本의 활용, 내용의 중복수록 여부, 내용의 주제분류, 避諱, 字形, 표현법, 校勘의 방법 등 교정의 기본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유희춘본은 이러한 교정의 원칙에 따라 치밀한 교정을 시행하였는데, 김안국본에서 나타난 조판상의 단순오자를 제외한 『주자대전』 원문의 오자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바로 고치지 않고 광곽 상단에 頭註의 형태로 교정하였다.

다음으로 두주의 내용을 사례별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여기에서 예로 든 유희춘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別集 권6(貴古3747-293)으로서, 광곽 상단 곳곳에 두주가 첨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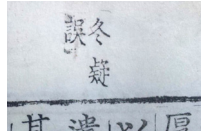
17) 柳希春, <朱子文集語類校正凡例> (洪啓禧本 『朱子大全』 卷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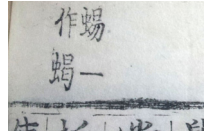
<그림 7> 當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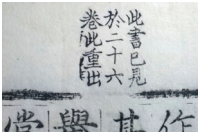
<그림 8> 疑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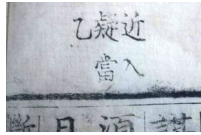
<그림 9> 疑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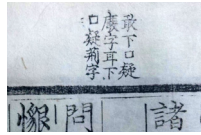
<그림 10> 一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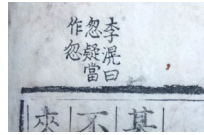
<그림 11> 重出



<그림 12> 當乙



<그림 13> 闕文



<그림 14> 李滉曰

- 1) ○當作○ (그림 7)  
마땅히 고쳐야 할 글자인 경우에 사용된다.  
“免當作澆”: “免”은 마땅히 “澆”로 되어야 한다.
- 2) ○疑作○ (그림 8)  
미심쩍은 글자라 하더라도 다른 증거자료가 없으면 함부로 고치지 않은 경우에 사용된다.  
“僅疑作偽”: “僅”은 아마도 “偽”가 되어야 할듯하다.
- 3) ○疑誤 (그림 9)  
틀린 글자이기는 하나 올바른 글자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 사용된다.  
“冬疑誤”: “冬”은 아마도 誤字인 듯하다.
- 4) ○一作○ (그림 10)  
다른 본에서 달리 쓰인 곳이 있으나 어느 글자가 옳은 지 判斷을 내리지 못할 境遇에 사용된다.  
“蝸一作蝸”: “蝸”은 어떤 본에 “蝸”로 되어 있다.
- 5) 此書已見於○卷, 此重出 (그림 11)  
문집 가운데 동일 내용이 중복하여 나오는 경우에 사용된다.  
“此書已見於二十六卷 此重出”: 이 글은 이미 제26권에 보인다. 이것은 거듭 나온 것이다.
- 6) ○○疑當乙 (그림 12)  
두 글자가 倒置되었는지 의심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近入疑當乙”: “近”과 “入”은 아마도 도치되어야 할 듯하다.

7) ○下□疑○字 (그림 13)

闕文 즉, 빠진 글자가 있는 경우 보충할 때 사용된다.

“敢下□疑廢字 耳下□疑荊字”: “敢” 아래의 빈칸은 아마도 “廢”인 듯하고, “耳” 아래의 빈칸은 아마도 “荊”인 듯하다.

이와 같이 유희춘본은 확실한 오자나 오자로 의심되는 글자, 異本과의 차이, 중복 내용, 도치자, 권문 등 각 유형별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광곽 상단에 두주를 달아 놓았다. 이러한 두주방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당시 통행되는 교정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유희춘본 頭註의 특징은 李滉의 校正註를 實名을 붙여 달아 놓았다는 점이다. <그림 14>에서 보듯이 “李滉曰忽疑忽字”(李滉이 이르기를, “忽”는 아마도 “忽”자인 듯하다고 하였다.)라는 형식으로 주석을 달아 놓음으로써 이 주석이 이황의 교정주에 근거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유희춘본은 1573년 2월에 교정과 인역이 시작되어 1575년 6월에 총 105部를 최종 인출하고<sup>18)</sup> 다음달 7월에 신하들에게 頒賜되었다.<sup>19)</sup>

유희춘본은 분량과 판형 및 卷首의 서문이 모두 金安國本과 동일하며, 別集 卷末에 “萬曆三年六月日, 嘉善大夫工曹參判兼同知經筵成均館事 臣柳希春校”라고 한 校記가 있다.

### 3.3 元斗杓本 『朱子大全』

이 판본은 1635년(인조 13)에 元斗杓가 전라도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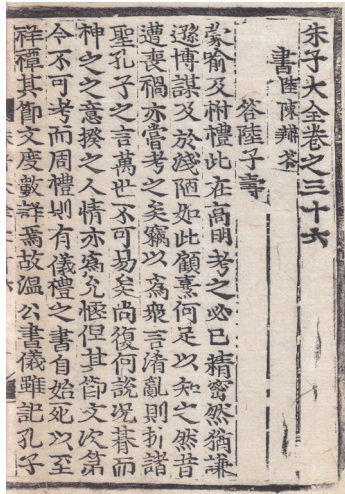
앞서 金安國本과 유희춘본은 활자로 인출한 까닭에 그 발행부수는 매우 적었다. 유희춘본이 105부 인출된 것을 고려한다면 金安國本도 그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이 두 판본은 임진왜란(1592~1598)과 李适의 난(1624), 정묘호란(1627) 등 전란을 거치면서 대부분 분실되거나 일본으로 유출되어 公卿大家에

18) 『선조실록』 『6년(1573) 1월 29일』.

19) 日本天理大 所藏本 『朱子大全』(124.7-123) 內賜記. “萬曆三年七月日, 內賜工曹參判柳希春朱子大全一件. 命除謝恩. 右承旨臣鄭(手決)” 國立文化財研究所, 『海外典籍文化財 調査目錄 - 日本天理大學 天理圖書館 所藏 韓國本』.

서조차 그 책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전라도관찰사 元斗杓(1593~1664)는 임지에 부임하자 이전에 간행되었던 『주자대전』의 殘本들을 수집하여 1부의 완질을 만든 다음, 이를 저본으로 삼아 목판에 판각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刻手는 당시 불경 판각의 경험이 많은 수백명의 승려들을 동원하였고, 판목은 전주감영에서 조달하여 5개월만에 판각을 완료하였다.<sup>20)</sup>



<그림 15> 원두표본 『朱子大全』(개인소장본)

원두표가 선택한 판각방식은 기존의 『주자대전』 인본을 번각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板下本을 별도로 제작할 필요없이 5,437판이나 되는 대량의 목판을 단 5개월 만에 모두 판각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판각은 원두표가 생각하지 못한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하였다. 당시 김안국본과 유희춘본의 완질이 전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두 판본의 殘本들을 수합하여 한 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원두표는 자신이 수집한 판본이 모두 유희춘본인 줄 알고 있었다. 그는 교정이 草率하게 이루어진 김안국본이 그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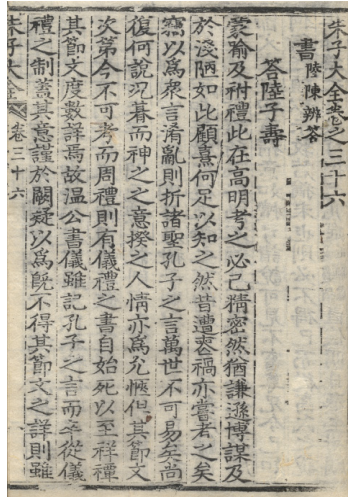
20) 『承政院日記』 仁祖13年(1635)4月24日.

원두표본 가운데 김안국본을 번각한 부분은 김안국본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결함은 이후 洪啓禧의 校正本이 나오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원두표본은 책의 분량과 판형이 앞선 두 본과 동일하다. 다만, 卷首에 天順本의 서문인 胡緝의 <重刊序>(1460)가 빠지고, 萬曆本의 서문인 <大全序>(劉曰寧, 劉洪謨, 1605)와 <朱子奏議序>(葉向高, 1604)가 追加되었다. 간행당시에 만력본이 이미 조선에 수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 3.4 洪啓禧本 『朱子大全』

이 판본은 1771년에 洪啓禧(1703~1771)의 校正本을 全羅監營에서 刊行한 본이다.



<그림 16> 홍계희본 『朱子大全』(개인소장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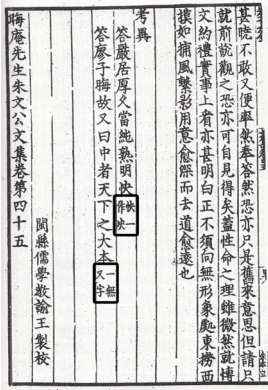
영조 연간(1724~1776)에 전라도에 보관되어 있던 원두표본 『朱子大全』의

판목이 모두 불에 타버리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 당시 문헌편찬의 대가였던 홍계희가 『朱子大全』의 重刊에 대비하여 이미 간행된 원두표본 『朱子大全』을 대상으로 정확성 검토에 들어갔다. 그 결과, 홍계희는 원두표본에 오류가 많고 유희준본의 교정범례와 합치되지 않는 곳을 발견하였다. 이는 저본으로 사용된 판본 가운데 김안국본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곧바로 교정에 착수하여 4, 5차례 교정을 한 다음 하나의 正本을 만들었다. 교정은 北京에서 구입한 10여 종의 주자문집 관련문헌과 조선에서 간행된 판본을 상호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내용의 증보에도 힘을 기울여 『朱子大全』에서 빠진 詩文을 수집하여 遺集 2권을 편집하고 또 『朱子實紀』, 『朱子年譜』 및 주자의 16대손인 朱玉이 편찬한 『朱子文集大全類編』에서 자료를 모아 附錄 12권을 편집한 다음 이를 別集 뒤에 追錄하였다(<표 2> 참고). 아울러 卷末에 校正註로 수록되어 있던 <考異>도 대폭 증보하였다(<그림 17>, <그림 18> 참고).<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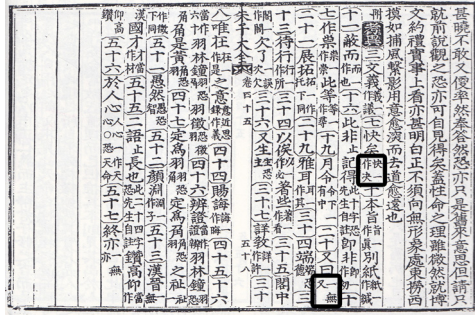
<표 2> 洪啓禧本 『朱子大全』의 增補

	권차	수 록 내 용 (편수)
遺集	卷1	詞(1), 賦(1), 詩(165)
	卷2	奏狀(1), 書(33), 雜著(11), 序(2), 跋(6), 墓銘(5), 公移(2)
附錄	卷1	道統源流, 世系源流, 父師遺言
	卷2	遺像, 宋史本傳, 門人敘述, 祭文
	卷3	行狀
	卷4	年譜原本
	卷5	年譜別本上
	卷6	年譜別本下
	卷7	宅祠書院亭坊, 祠院記題一
	卷8	祠院記題二
	卷9	祠院記題三
	卷10	祠院記題四
	卷11	諸編序跋
	卷12	編著書目, 墨蹟類記, 題名錄, 黨禁錄, 辨誣錄

21) 洪啓禧, 『朱子文集語類改刊凡例』(洪啓禧本 『朱子大全』 卷首).



<그림 17> 가정본 考異



<그림 18> 홍계희본 考異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에서 『朱子大全』은 1543년부터 1771년까지 240년 동안 총 4차례 간행되었다. 중국에서 간행된 판본과 차이점이 있다면, 중국은 편집부터 간행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朱子の 문인이나 후손, 또는 주자와 관련된 지방의 관원이 자발적으로 주도한 반면, 한국에서는 주로 중앙정부가 이를 주도하여 중앙의 출판기관인 교서관에서 간행하거나 국왕의 지시를 받은 지방관원이 간행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주자의 후손이 없었기도 하거니와 조선시대 500년 동안 성리학이 官學의 지위를 확고하게 유지하였고, 주자가 공자, 맹자 다음으로 추앙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자대전』의 간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왕의 지시를 받거나 국왕에게 보고를 해야만 했다. 한국에서 간행된 4종의 판본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한국본 『주자대전』 일람표

판본명	서명	분량	행×자	간종	간행시기	간행지
김안국본	朱子大全	正100, 續11, 別10	10×18	활자본(을해자)	1543	교서관
유희춘본	朱子大全	正100, 續11, 別10	10×18	활자본(을해자)	1575	교서관
원두표본	朱子大全	正100, 續11, 別10	10×18	목판본(번각)	1635	전라도
홍계희본	朱子大全	正100, 續11, 別10, 遺集2, 附錄12	10×22	목판본	1771	전라도

#### 4. 『朱子書節要』의 刊行

1543년에 金安國이 『주자대전』을 간행하자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사람은 退溪 李滉(1501~1570)이었다. 이황은 『주자대전』이 간행된 지 3년이 지난 1546년에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와 본격적으로 『주자대전』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10년 후 그는 『주자대전』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학문적으로 중요한 편지를 정선하여 1556년에 『朱子書節要』를 편찬하였다.<sup>22)</sup> 이황이 특별히 편지에 주목한 까닭은, 朱子에게 있어서 편지란 학문을 토론하는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이황은 주자의 편지를 통해 『四書集註』에서 해결하지 못한 경학적 지식들을 보완할 수 있고, 또 유학의 기본정신이라 할 수 있는 實踐倫理의 학문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주자대전』은 正集 100卷, 續集 11卷, 別集 1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지가 수록된 卷은 正集 권24~64, 續集 권1~11, 別集 권1~6으로 모두 합쳐 58권이다. 정집은 편지의 주제과 수신자에 따라 <時事出處>, <汪張呂劉問答>, <陸陳辨答>, <問答論事>, <問答>, <知舊門人間答> 등 여섯 분야로 분류되어 있으며, 續集과 別集은 正集이 완성된 후 수집된 佚文 短篇들을 모아 편집해 놓았다. 『주자대전』에는 주자가 465명에게 보낸 편지 2,365편이 수록되어 있다. 『주자서절요』는 이 가운데 1,234편을 선정하고, 선정된 편지에서 다시 중요한 내용만을 抄節하였다. 편수로는 52%를 선정하고, 내용으로는 31%를 초절하였다(<표 4> 참고).

22) 李滉, 『退溪集』 <年譜>.

<표 4> 『주자대전』과 『주자서절요』의 편지분량 비교

區分	朱子大全			朱子書節要			選定率 ③/①	抄節率 ④/②
	受信者數	篇數①	字數②	受信者數	篇數③	字數④		
時事出處	66	182	86,700	34	62	27,300	34%	31%
汪張呂劉問答	4	178	101,500	4	101	29,900	57%	29%
陸陳辨答	4	24	16,900	4	13	9,000	54%	53%
問答論事	18	45	21,500	17	24	9,800	53%	46%
問答	31	117	50,000	29	65	18,900	56%	38%
知舊門人問答	323	1,164	478,500	261	745	150,800	64%	32%
續集	50	470	70,700	28	150	16,600	32%	23%
別集	51	185	45,300	29	74	11,300	40%	25%
計	465 (중복제외)	2,365	871,100	355 (중복제외)	1,234	273,600	5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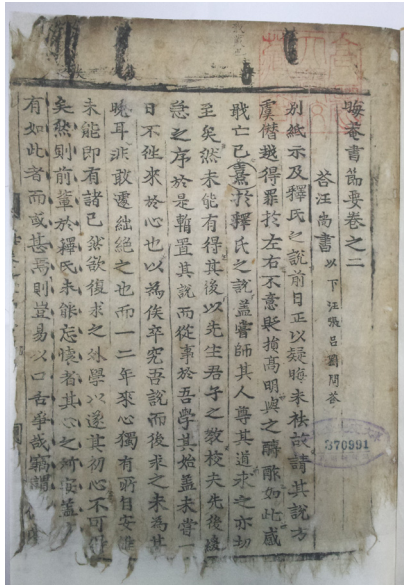
『주자서절요』는 1556년에 첫 편집본이 완성된 후 이황의 知舊門人과 후학들에 의해 전국 각지에서 활자와 목판으로 총 10회에 걸쳐 간행되었다(<표 5> 참고). 이렇게 간행이 진행되는 동안 이황은 讀書와 講學 및 편지를 통한 문인들과의 문답을 통하여 『주자서절요』에서 발견된 『주자대전』 원문의 誤字를 교정하고 難解한 내용에 대한 註釋을 증보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각 판본에 순차적으로 반영되었다.

<표 5> 『주자서절요』 판본

	版本名	書名	卷/册	刊種	刊行地	刊行者	刊行年
1	星州本	晦菴書節要	15/8	活字本	星州	黃俊良	1561
2	海州本	晦菴書節要	15/8	活字本	海州	柳仲郢	1565
3	平壤本	晦菴書節要	15/8	活字本	平壤	鄭宗榮	1566
4	定州本	朱子書節要	15/8	木版本	定州	柳仲郢	1567
5	川谷書院本	朱子書節要	20/10	木版本	星州	鄭述	1575
6	羅州本	朱子書節要	20/10	木版本	羅州	金誠一	1586
7	全州本	朱子書節要	20/10	木版本	全州	鄭經世	1611
8	陶山書院本	朱子書節要	20/10	木版本	安東	陶山書院	1743
9	壬辰字本	朱子書節要	20/10	活字本	서울	校書館	1777~1800
10	陶山書院重刊本	朱子書節要	20/10	木版本	安東	陶山書院	1904

### 4.1 星州本 『晦菴書節要』

이 판본은 이황의 문인 黃俊良(1517~1563)이 경상도 星州牧使로 재직하면서 1561년에 활자로 간행한 본이다.



<그림 19> 성주본 『晦菴書節要』  
(고려대 소장본 晚松貴237)

여기에 사용된 활자는 鄭夢周를 배향한 경상도 永川의 臨臯書院에서 보유한 목활자이다. 이 판본에는 1556년부터 간행전까지 발견된 오자를 수정하고 인명에 대한 주석을 많이 추가되었다. 주석의 형식은 편지의 제목이나 본문 속에서 관직이나 字 또는 姓만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인물의 姓名과 號 등을 밝혔으며, 이러한 人名註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주자서절요』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출현인물에 대한 정보였기 때문이다.

◇ 星州本 人名註 事例(卷2~卷3)

郭子和：雍

譙天授：定

胡：憲

劉：恐是子翬

侯子：仲良

李伯聞：元注，名宗思。○今按：聞他處作“聞”，疑作“聞”者，是。

正獻公：呂公著

舍人丈：呂本中

滎陽：呂希哲

劉子澄：清之，號靜春先生。

諸子：宋若水先生有墓誌，三子見下。

陸子壽：九齡，復齋先生。

陸子美：九韶，梭山先生。

이 성주본은 활자로 인쇄하였기 때문에 소량의 부수만 간행하였고, 교정을 담당할 사람이 부족하여 조판상의 오자와 주석의 오류가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그 후 이황은 문인 金誠一을 시켜 성주본의 오류를 교정하게 하고 문인들과의 강학을 통해 주석을 보충하였다.

• 성주본 서지사항 (<그림 19> 참고)

서명：晦菴書節要

분량：15권 8책

간종：活字本(木活字)

간행자：黃俊良(星州牧使)

간행년：156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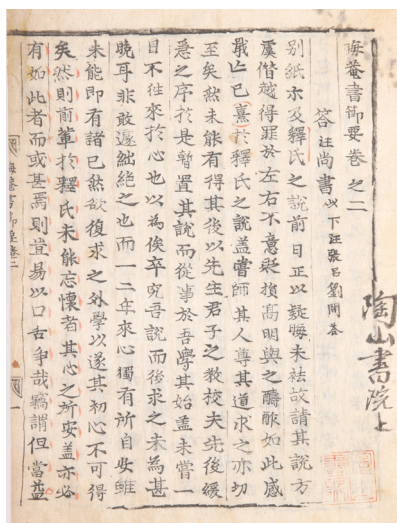
판형：12행 21자, 四周單邊, 24.0×17.7cm, 小字雙行, 上下下向魚尾

서발：黃俊良 跋(1561)

4.2 海州本 『晦菴書節要』

이 판본은 이황의 문인 柳雲龍과 柳成龍 형제의 부친인 柳仲郢(1515~1573) 이 황해도관찰사로 재직하면서 1565년에 황해도 海州에서 활자로 간행한 본이다. 그런데 이 판본은 사전에 이황과 협의할 하지 않고 간행함에 따라 성주본 간행

이후에 이황이 추가로 정리해 놓은 주석을 증보하지 않고 단지 조판상의 간단한 오자들만 바로잡아 놓았다. 활자는 성주본에서 사용된 임고서원 목활자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림 20> 해주본 『晦菴書節要』  
(도산서원소장본)

- 해주본 서지사항 (<그림 20> 참고)
  - 서명 : 晦菴書節要
  - 분량 : 15권 8책
  - 간중 : 活字本(木活字)
  - 간행자 : 柳仲郢(黃海道觀察使)
  - 간행년 : 1565년
  - 판형 : 12행 21자, 四周單邊, 23.5×17.8cm, 小字雙行, 上下下向魚尾
  - 서발 : 黃俊良 跋(1561)

### 4.3 平壤本 『晦菴書節要』

이 판본은 평안도관찰사 鄭宗榮(1513~1589)이 1566년에 平壤에서 활자로 간행한 본이다.<sup>23)</sup> 조선시대 지방관리의 가장 큰 임무 가운데 하나는 “興學校”, 즉 교육을 진흥시키는 일이다. 정종영은 관찰사로 부임하자마자 서북지방의 교육발전을 위해 평양에다 書院을 건립한 후 서적간행을 위해 印書局을 설치하여<sup>24)</sup>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서적의 하나로 『주자서절요』를 간행하였다. 이 판본은 성주본이나 해주본보다 큰 활자를 사용하여 간행하였으므로 나중에 이황이 이 책을 받아보고는 老眼에 읽기 편하다고 하면서 매우 만족하였다고 한다.<sup>25)</sup> 이 평양본 역시 정종영이 독자적으로 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황이 증보한 주석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그 인본은 현재 전해지지 않아 어떤 활자로 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 4.4 定州本 『朱子書節要』

이 판본은 앞서 해주본을 간행한 바 있는 柳仲郢이 평안도의 定州牧使로 부임하여 1567년에 목판으로 간행한 본이다. 이 본은 이황의 요청에 따라 본래의 서명인 “晦菴書節要”를 “朱子書節要”로 바꾸어 간행된 최초의 판본이다.

이 본은 성주본에 이어 정리한 주석이 두 단계로 증보되었다. 1단계는 성주본이 간행된 1561년부터 정주본의 간행작업이 개시되기 전까지 정리한 <略註>이고, 2단계는 정주본 간행작업의 진행중에 추가로 증보한 <增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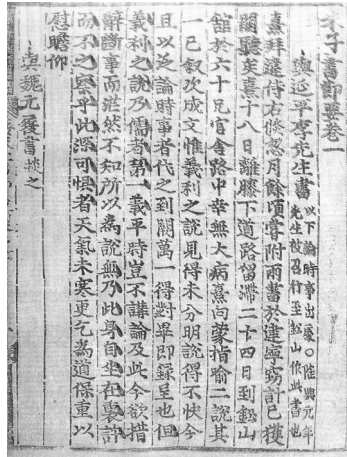
첫 번째 <약주>에서는 人名註와 함께 解說註가 주를 이루며, 해설주에는 難解語句, 典據, 時代情況, 內容概要를 설명한 주석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 밖에도 문자에 대한 校正註와 訓詁註도 적지 않게 추가되었다.

23) 『朱子書節要』 卷尾 <定州刊朱子書節要跋>.

24) 李端夏, 『畏齋集』 卷8 <左贊成鄭公神道碑銘>.

25) 『定本退溪全書』 <答鄭子中>(1567年2月8日).

『定本退溪全書』 <問金而精>(1567年3月2日).



<그림 21> 정주본 『朱子書節要』 (성균관대 소장본(貴 C2-120c))

◇ 定州本 <略註> 解說註 事例(卷2~卷3)

**【난해어구】**

- [見得此意] : 指吾學而言, 非指上文也.
- [八字打開] : 言分明也, 禪書亦多用此語.
- [用心之左] : 屬伯崇

**【전거】**

- [止觀] : 唐文粹天台智者止觀. “夫止觀者, 何爲也. 導萬法而復於實際者也. 實際者何也, 性之本也. 物之所以不能復者, 昏與動使之然也. 照昏者謂之明, 駐動者謂之靜, 明與靜止觀之體也. 在因謂之止觀, 在果謂之智定.” 止觀之法所以使羣生行覺路而之妙境也. 不知此教者, 則學何所入, 功何所施, 智何所發.
- [擿埴冥行] : 揚子“擿埴索塗冥行而已”, 言盲人以杖擿地求塗也.

**【내용개요】**

- (本文) 以上論公卿二制之得失
- (本文) 以上論大夫二制之得失
- (本文) 以下先生答說
- (本文) 以下先生自言也. 但語勢有未穩, 疑或有闕誤.
- (題目) 論中和第六書

◇ 定州本 <略註> 校正註 事例(卷2~卷3)

- 乘天理 : “乘”或云當作“秉”
- 二 : 疑當作“一”
- 柷 : 泰書從“阜”

◇ 定州本〈略註〉訓詁註 事例(卷2~卷3)

- 嗥：音厓，犬欲噬也.
- 戢：藏也
- 扭：九女[女九]切，手轉貌
- 捏：年結切，捻也

두 번째 <增註>에서는 人名註가 현저하게 減少하고 難解語句, 典據, 時代情況을 설명한 解說註가 전체의 2/3 이상을 차지한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時代情況에 대한 해설주가 대폭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李滉이 이제는 難解한 文字나 人名을 밝히는 것에서 벗어나 내용 그 자체에 대한 연구가 한층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 定州本〈增註〉解說註 事例(卷2~卷3)

【시대정황】

- 辭免文字：辭秘書郎時
- 昨承枉過：淳熙乙未五月，伯恭過寒泉精舍.
- 還家：先生送伯恭，至信州鵝湖寺還家，謂自信州還也.
- 丹丘之行：卽溫台之行
- 亦遂從欲：淳熙丙申辭秘書差武夷冲佑觀時也
- 老婦竟不起疾：三年十一月，令人劉氏卒.
- 乞其庸繆衰殘之身：辭知南康軍
- 到此：到南康
- 信陽事：信陽守劉大辯希賞，誘致流民，奪見戶熟田以與之，公劾奏，朝用劉請.
- 記文定本：先生要伯恭作白鹿洞書院記，有未穩處，往復參訂而後定，故云定本.
- 合符而歸：自南康解紱而歸
- 懲創太過：謂懲於禪學之高虛太著於下學之低平

이 본의 또 하나의 특징은 “편지수신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諸子目錄>을 작성하여 상세한 인물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그 체제를 보면, 먼저 수록된 편지의 순서에 따라 수신자를 배열한 다음 그 아래에 名, 字, 출신지를 쓰고 해당 인물의 행적과 인물평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인용문헌이 있으면 그것을 밝히는 형식으로 기술하였다. <제자목록>에는 『주자서절요』 전체수신자 355명 가운데 305명의 인물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50명은 미상으로 처리되어 있다. 또 기재된 305명 가운데 195명은 인용문헌을 명시해 놓았으며, 한 사람에 대한 설명에 2~3건의 문헌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제자목록>에 인용된 문헌은 총 20종으로

『朱子實紀』(101건), 『朱子大全』(64건), 『大明一統志』(33건), 『朱子語類』(23건), 『宋史』(18건), 『名臣言行錄』(13건), 『台寓錄』(10건), 『宋濂集』(5건), 『姓原珠璣』(3건), 『鶴林玉露』(2건), 『翰墨全書』(2건), 『詩人玉屑』(2건), 『啓蒙翼傳』, 『象山年譜』, 『聯珠詩格』, 『淵源續錄』, 『瀛奎律髓』, 『眞西山集』, 『陳止齋集』, 『養老書』(이상 각 1건) 등이다.

◇ 諸子目錄 사례(권1)

延平李先生: 이름은 侗, 자는 愿中, 南劍州의 劍浦 사람이다. 朱先生이 스스로 이르기를, “연평을 뵈은 뒤에 비로소 학문이 平實해졌다.”라고 하였으며, 沙縣의 鄧天啓는 일찍이 일컫기를, “원중은 마치 얼음항아리와 같고 가을달과 같아서 깨끗하고 투명하여 전혀 흠이 없다.” 하였다. ○ 『名臣言行錄』에 자세히 나온다.

魏元履: 이름은 揆之, 호는 良齋, 建陽 사람이다. 孝宗 때에 布衣의 몸으로 부름을 받아 國子監 學錄이 되었다가 간언을 올린 일로 벼슬을 떠나게 되었는데, 선생이 梅花詩를 지어 그 마음을 표하였다. ○ 『言行錄』에 보인다.

陳侍郎: 이름은 俊卿, 자는 應求, 莆田 사람이다. 進士에 올라 벼슬이 右僕射에 이르고 福公에 봉해졌으며, 뒤에 少師와 魏國公으로 치사하였다. 시호는 正獻이다. 孝友하고 忠敬하며, 청렴 엄격하고 禮를 좋아하여 나라를 中興시킨 어진 정승이다.

曹晋叔: 이름은 미상이고, 建安 사람이다. ○ 『朱子實紀』의 『門人類』에 보인다. ○ 선생이 일찍이, “늙어서도 隱約하여 思慮가 깊다.”라고 하였다.

陳丞相: 위에 나오는 陳侍郎과 같은 인물이다.

王尙書: 이름은 應辰, 자는 聖錫, 玉山 사람이다. 진사에 제1등으로 올라 벼슬이 吏部尙書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文定이다. 일찍기 端明殿學士가 되었으므로 汪端明 先生이라고도 일컫는다. 당시 善類의 宗주로 추앙을 받았다.

• 정주본 서지사항 (<그림 21> 참고)

서명 : 朱子書節要

분량 : 15권 8책

간종 : 木版本

간행자 : 柳仲郢(정주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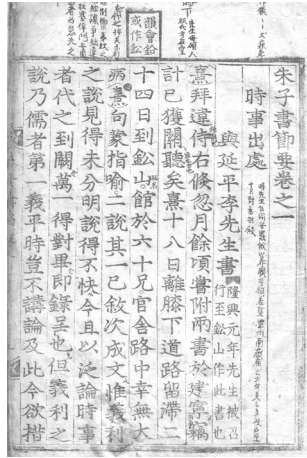
간행년 : 1567년

관형 : 12행 21자, 四周單邊, 25.3×18.5cm, 小字雙行, 上下內向黑魚尾, 上下大黑口

서발 : 黃俊良 跋(1561), 柳仲郢 後識(1567), 奇大升 跋(1567)

#### 4.5 川谷書院本 『朱子書節要』

이 판본은 이황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간행된 판본으로 문인 鄭述(1543~1620)가 1575년에 경상도 星州의 川谷書院에서 목판으로 刊行하였다.<sup>26)</sup>



<그림 22> 川谷書院本 (개인소장본)

서원의 이름인 “川谷”은 程頤의 “伊川”과 朱子의 “雲谷”에서 由來한 것이다. 친곡서원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곡서원본에는 정주본이 간행된 1567년부터 이황이 세상을 떠난 1570년까지 정리한 주석이 증보되어 있다. 주석의 내용은 성주본과 정주본의 증보과정에서 누락된 주석을 일부 보충한 것으로서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 않으며 그 수량도 매우 적은 편이다.

둘째, 친곡서원본은 기존의 15권 8책에서 20권 10책으로 권책수를 바꾸고 판형도 12행 21자에서 10행 18자로 바꾸었다. 이는 같은 해에 乙亥字 활자로 간행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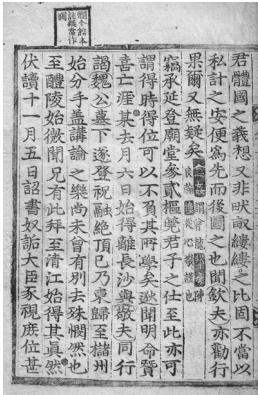
26) 張顯光, 『旅軒集』 <皇明朝鮮國故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兼世子輔養官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寒岡鄭先生行狀>.

유희춘본 『주자대전』의 판형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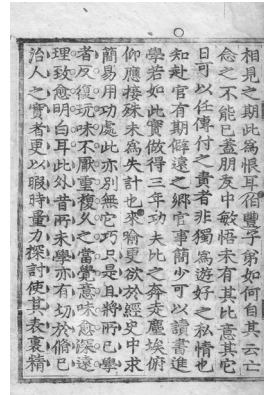
셋째, 정주본에서 제1책의 卷首에 한꺼번에 수록되었던 <諸子目錄>을 각권에 나누어 수록하였다.

넷째, 『주자대전』 본래의 주석과 제목 아래의 주석을 제외한 모든 주석을 각편지의 끝부분으로 옮기고 그 표제어를 陰刻으로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였다(<그림 23> 참고).

다섯째, 이황이 편집초기에 핵심내용에 대해 붓으로 쳐 놓은 圈點(○와 )을 목판에다 실현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 곳에 흑권(●)을 찍어서 독서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이황이 정해 놓은 凡例<sup>27)</sup>에 따라 앞 편지의 마지막 글자 다음에 여백이 없을 경우 광곽의 상단에 권점보다 큰 白圈(○)을 찍어 구분하였다(<그림 24> 참고).



<그림 23> 천곡서원본  
(尾註·頭註)



<그림 24> 천곡서원본  
(圈點·黑圈·白圈)

여섯째, 광곽의 상단에 頭註를 追刻하였다. 이 두주는 후학들에 의해 추가된 것으로 대부분 교정주이다. 교정에 주로 사용된 자료는 “唐本”(중국본 『주자대전』),

27) 『定本退溪全書』 雜著 <書朱子大全凡例>.

“館本”(교서관에서 刊行된 유희춘본 『주자대전』), 『韻會』 등이다(<그림 23> 참고).

◇ 川谷書院本 頭註 事例(卷3~卷4)

- “辨”今『館本』作“辯”
- “辨”今『館本』作“辯”
- “凌”恐當作“陵”
- 下“日”字『唐本』作“以”
- “撫”『唐本』從“木”
- 『唐本』旁註“日”疑“目”字之誤
- “撫”『唐本』從“木”
- 攷『唐本』“得”作“次”
- 『唐本』旁註“談”一本作“輩”
- “學”『唐本』作“舉”
- 『韻會』“趨”亦作“趣”
- “婁”『唐本』同『韻會』屢或作婁
- “酒肉”『唐本』作“肉食”
- “輔”『唐本』作“補”

• 친곡서원본 서지사항(<그림 22> 참고)

- 서명 : 朱子書節要
- 분량 : 20권 10책
- 간종 : 木版本
- 간행자 : 鄭述(친곡서원 원장)
- 간행년 : 1576년
- 관형 : 10행 18자, 四周雙邊, 21.3×16.3cm, 小字雙行,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 서발 : 李滉 序(1558), 奇大升 後識(1572), 黃俊良 跋(1561), 奇大升 跋(1567)

#### 4.6 기타 『朱子書節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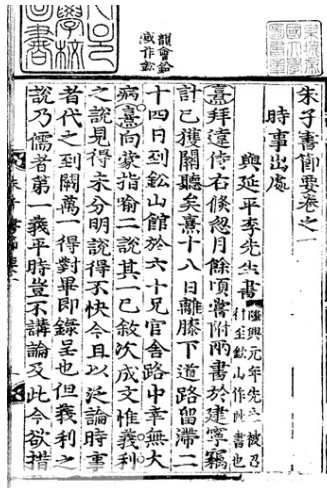
친곡서원본이 간행된 후에도 『주자서절요』는 전국 각지에서 계속 간행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판본은 친곡서원본을 그대로 번각하거나 이를 저본으로 삼아 중간한 것이므로 내용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판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한다.

### 4.6.1 羅州本 『朱子書節要』

이황의 문인 金誠一이 전라도 羅州牧使로 부임하여 1586년에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이 판본은 6년 후에 일어난 임진왜란으로 판목이 소실되고 간행기간이 짧아 그 인본이 전해지지 않는다.

### 4.6.2 全州本 『朱子書節要』

이황의 再傳 문인 鄭經世(1563~1633)가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하여 1611년에 全州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천곡서원본을 번각한 판본이다.



<그림 25> 全州本 『朱子書節要』  
(서울대 소장본)

- 전주본 서지사항 (<그림 25> 참고)  
서명: 朱子書節要  
분량: 20권 10책  
간중: 木版本

간행자 : 鄭經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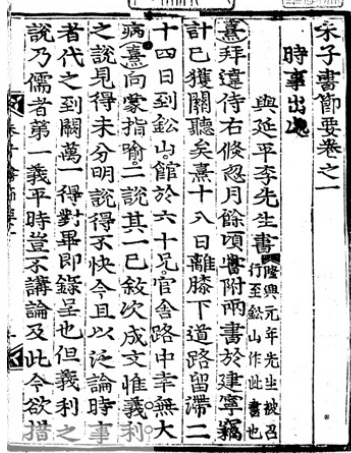
간행년 : 1611년

판형 : 10행 18자, 四周雙邊, 21.1×16.2cm, 小字雙行,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서발 : 退溪 序(1558), 奇大升 後識(1572), 黃俊良 跋(1561), 奇大升 跋(1567)

#### 4.6.3 陶山書院本 『朱子書節要』

安東의 陶山書院에서 1743년에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천곡서원본을 번각한 판본이다.



<그림 26> 陶山書院本 『朱子書節要』  
(서울대 소장본)

- 도산서원본 서지사항 (<그림 26> 참고)

서명 : 朱子書節要

분량 : 20권 10책

간중 : 木版本

간행자 : 陶山書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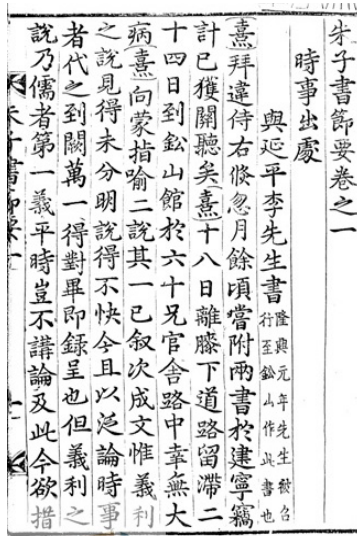
간행년 : 1743년

판형 : 10행 18자, 四周雙邊, 21.5×16.3cm, 小字雙行,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

서발 : 退溪 序(1558), 奇大升 後識(1572), 黃俊良 跋(1561), 奇大升 跋(1567)

#### 4.6.4 壬辰字本 『朱子書節要』

正祖(1777~1800) 때에 교서관에서 도산서원본을 저본으로 삼아 壬辰字로 간행하였다.



<그림 27> 壬辰字本 『朱子書節要』  
(서울대 소장본)

- 임진자본 서지사항 (<그림 27> 참고)

서명 : 朱子書節要

분량 : 20권 10책

간종 : 活字本(壬辰字)

간행자 : 校書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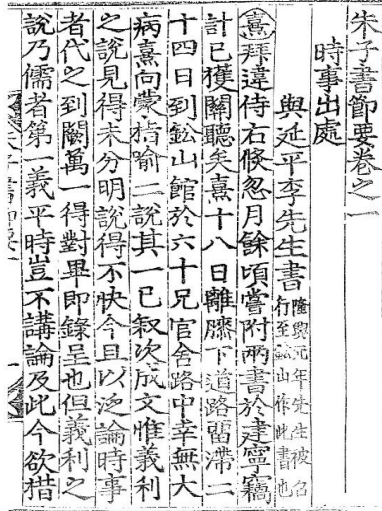
간행년 : 정조연간

판형 : 10행 18자, 四周單邊, 20.8×16.3cm, 小字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서발 : 退溪 序(1558), 奇大升 後識(1572), 黃俊良 跋(1561), 奇大升 跋(1567)

#### 4.6.5 陶山書院重刊本 『朱子書節要』

도산서원에서 1904년에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그림 28> 陶山書院重刊本 『朱子書節要』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

- 도산서원중간본 서지사항(<그림 28> 참고)  
 서명 : 朱子書節要  
 분량 : 20권 10책  
 간종 : 木版本  
 간행자 : 陶山書院  
 간행년 : 1904년  
 판형 : 10행 18자, 四周雙邊, 19.6×16.0cm, 小字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서발 : 退溪 序(1558), 奇大升 後識(1572), 黃俊良 跋(1561), 奇大升 跋(1567)

## 5. 『주자서절요』 이후의 주자문집 주석서와 절요서

### 5.1 『주자서절요』의 주석서

『주자서절요』가 간행된 이후 주자문집에 대한 연구가 급속도로 활성화되어 한국의 성리학은 한 단계 질적인 도약을 하게 된다. 이황의 후학들은 『주자서절요』를 鄕校, 書院 등의 교육기관에서 필수교과로 채택하였고, 아울러 『주자서절요』에 대한 주석서가 차례로 편찬되었다. 이황의 문인 李德弘은 『주자서절요』에 대한 이황의 강의록을 정리하여 『朱子書節要講錄』을 편찬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퇴계학파의 후학들에 의해 『朱書講錄刊補』와 『朱書講錄刊補筭疑』 등의 주석증보서가 나왔다(<표 6> 참고).

<표 6> 『주자서절요』 주석서

서명	편찬자		분량	간종
	성명	생몰년		
朱子書節要講錄	李德弘	1541~1596	15권 2책	寫
朱書講錄刊補	李 栽	1657~1730	6권 3책	刊
朱書講錄刊補筭疑	朴申慶	1713~1790	2권 1책	寫
朱書節要集解	鄭重器	1685~1757	8권 4책	刊

### 5.2 『주자대전』 절요서

『주자서절요』에 수록된 편지는 『주자대전』의 원편지에 비하면 1/3로 줄어든 것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량이었다. 그래서 趙翼은 이를 다시 줄여 12권 6책의 『朱書要類』를 편찬하였고, 正祖는 다시 100편만을 선정하여 『朱書百選』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주자서절요』는 편지 이외의 다른 시문에도 영향을 주었다. 鄭經世는 『주자서절요』의 편찬방식을 도입하여 주자의 문장전체를 대상으로 『朱文酌海』를 편찬하였고 정조는 주자의 名詩를 선정하여 『雅頌』을 편찬하였

다. 또한 宋時烈은 『주자서절요』와 『주문작해』를 합쳐 『節約通編』을 편찬하기도 하였다(<표 7> 참고).

<표 7> 『주자대전』 절요서

서명	편찬자		분량	간종
	성명	생몰년		
朱文酌海	鄭經世	1563~1633	16권 12책	刊
朱書要類	趙翼	1579~1655	12권 6책	刊
節約通編	宋時烈	1607~1689	43권 25책	刊
朱文抄選	宋時烈	상동	4권 2책	刊
朱子會選	正祖	1752~1800	48책	寫
朱子選通	正祖	상동	3책	寫
紫陽子會英	正祖	상동	3책	寫
朱書百選	正祖	상동	6권 3책	刊
朱文手圈	正祖	상동	6권 3책	寫
雅頌	正祖	상동	8권 2책	刊
朱子書節約	正祖	상동	20책	寫
朱節彙要	柳致明	1777~1861	4권 2책	刊

### 5.3 『주자대전』 주석서

조선왕조 후기에 들어서면 주자에 대한 연구범위를 더욱 확장하여 『주자대전』 전체에 대한 주석서를 편찬하였다. 尤菴 宋時烈의 『朱子大全筭疑』를 시작으로 이를 증보한 각종 주석서들이 그의 후학들에 의해 편찬되었다(<표 8> 참고).

그 밖에도 정조가 편찬한 『雅誦』에 대해 규장각 각신들이 주석을 가한 『朱詩雅誦註』와 『朱書百選』에 대해 註釋을 가한 李煥模의 『百選隔蒙』과 같은 개별 절요서의 주석들도 편찬되었다.

<표 8> 『주자대전』 주석서

서명	편찬자		분량	간종
	성명	생몰년		
朱子大全筭疑	宋時烈	1607~1689	17책	刊
朱子大全筭疑問目	金昌協	1651~1708	12권 12책	寫
朱子大全筭疑後語	李宜哲	1703~1778	18권 9책	寫
朱子大全筭疑補	金敏材	1699~1766	6권 3책	寫
朱子大全筭疑問目標補	金邁淳	1776~1840	24권 12책	刊
朱子大全筭疑輯補	李恒老	1792~1868	14권 14책	寫

## 6. 맺음말

『주자대전』은 김안국이 1543년에 처음 간행한 이래 한국에서 총 4차에 걸쳐 활자본과 목판본으로 간행되었고, 이황이 편찬한 『주자서절요』는 총 10차에 걸쳐 간행되었다. 이 두 문헌의 간행을 통해 주자의 문집은 한국성리학자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한국에서 주자문집을 수용한 방식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선택적수용에서 전체적수용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

『주자대전』은 총 121권의 방대한 문집이다. 따라서 간행초기에는 일반학자들이 전질을 소유하거나 연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황은 수많은 주자의 시문 가운데 먼저 학문적으로 중요한 편지만을 抄出하여 『주자서절요』를 편찬하였고, 그 영향을 받은 후학들은 『朱文酌海』를 시작으로 각 시문의 분야별 절요서들을 편찬하였다. 조선왕조 후기에는 이러한 절요서를 통해 축적된 학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주자대전』 전체에 대한 연구로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

둘째, 원문에 대한 정밀한 교정을 하였다.

『주자대전』은 중국에서 간행될 때마다 缺落과 誤字의 문제가 항상 대두되었다. 이 중국본을 저본으로 삼아 간행된 한국본 『주자대전』 또한 동일한 문제를 그대로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황은 독서와 강학을 통해 『주자대전』의 오류를 바로잡았으며, 『주자서절요』를 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원문을 교정하였다. 또한 유희춘은 두 번째 『주자대전』을 간행하면서 이러한 이황의 교정성과를 최대한 반영하고, 아울러 중국에서 수입한 각종 異本들을 참고하여 이전의 판본보다 정확한 판본을 만들었으며, 네 번째 판본의 간행을 주도한 홍계희는 10여종의 이본을 참고하여 교정을 실시함으로써 중국본 교정주인 <考異>를 대폭 증보하였다.

셋째, 내용에 대한 상세한 주석을 하였다.

이황은 『주자서절요』를 간행하는 과정에서 원문의 교정과 함께 인명, 어구, 진거, 시대정황 등 난해한 내용에 대해 상세한 주석을 하였고, 그의 후학들은 『朱子書節要講錄』을 시작으로 『주자서절요』에 대한 주석을 계속 증보하였다. 또한 『주자대전』 전체로 연구범위를 확장함에 주석의 범위 또한 전체로 확장되어 『朱子大全筭疑』와 이를 증보한 주석서들이 연이어 편찬되었다.

넷째, 중국본 『주자대전』에서 빠진 詩文과 附錄을 증보하였다.

『주자대전』의 마지막 판본인 홍계희본에서는 다른 문헌에 산견되는 주자의 시문을 수집하여 遺集 2권을 편집하고 또 『朱子實紀』, 『朱子年譜』, 『朱子文集大全類編』 등에서 자료를 모아 부록 12권을 편집한 다음 이를 별집 뒤에 수록하였다.

## <참고문헌>

『宣祖實錄』.

『世宗實錄』.

『承政院日記』.

『中宗實錄』.

『增補文獻備考』.

『晦軒先生實紀』.

『朱熹集』. 成都: 四川教育出版社, 1996.

『朱子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定本退溪全書』. 서울: 退溪學研究院, 2002~2008.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錄 - 日本天理大學天理圖書館所藏韓國本』. 서울: 國立文化財研究所, 2005.

金安國. 『慕齋集』. 韓國文集叢刊 20輯. 서울: 韓國古典翻譯院, 1988.

李滉. 『退溪集』. 韓國文集叢刊 29~31輯. 서울: 韓國古典翻譯院, 1989.

柳希春. 『眉巖日記草』. 서울: 朝鮮史編修會, 1938.

張顯光. 『旅軒集』. 韓國文集叢刊 60輯. 서울: 韓國古典翻譯院, 1990.

許穆. 『記言』. 韓國文集叢刊 99輯. 서울: 韓國古典翻譯院, 1992.

李端夏. 『畏齋集』. 韓國文集叢刊 125輯. 서울: 韓國古典翻譯院, 1994.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6.